

코스피지수	1967.79	▲	+19.49
코스닥지수	610.55	▲	+1.57
환율 (원·달러)	1209.50	▼	-1.50

지수는 30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비즈프리즘 | 아시아태평양 혁신 제약사 현황으로 본 한·일 현주소

혁신 제약사 TOP 20위...한국 2개, 일본 15개

대형제약사 중 한미·대용 등 선정 중소제약사는 제넥신·휴온스·틀젠 대형·중소형 모두 대기업 초강세

‘아시아태평양 혁신 대형제약사 20위 에 한국은 2개, 일본은 15개.’

정부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 핵심산업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에 전력하는 우리 바이오·제약 산업의 현주소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분야의 선두를 달리는 일본과는 아직 현실적인 격차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최근 발표한 ‘APAC(아시아태평양) 제약 혁신 현황:순위로 보는 기업 분석과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혁신적인 대형 제약사에 한국의 한미약품과 대용제약이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이 11위, 대용제약이 그 뒤를 이어 12위에 올랐다.

보고서에 언급한 41위까지 순위에서

는 두 기업을 포함해 한독(22위), SK그룹(24위), LG화학(26위), 유한양행(29위), 녹십자(29위), 종근당(29위), 보령제약(35위), 안국약품(37위), 일동제약(38위), CJ(41위) 등 총 12개 한국 업체가 올랐다.

또한 ‘가장 혁신적인 중소형 제약사’ 100위에는 한국의 제넥신(10위), 휴온스(15위), 틀젠(31위), 헬릭스미스(48위), 구 바이로메드, 메디톡스(57위), 메디포스트(79위), 바이오리더스(75위), 진원생명과학(80위), 유유제약(96위) 등 9개사가 올랐다.

이번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에서 상위권은 오랫동안 제약 분야에서 강자인 일본기업들이 휩쓸었다. 대형 제약사 부문에서 1위의 다이이찌산료를 비롯해 다케다 제약, 에이사이, 아스텔라스 제약, 오츠카 홀딩스 등 20위 안에 무려 15개의 일본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형 제약사 부문 역시 리스 파마 홀딩스(1위, 홍콩), 타카라 홀딩스(2위, 일본), 항서제약(3위, 중국), 베이진(4위, 중국), 닛토덴코(5위, 일본), 베타파

마(7위, 중국), 칸시노 바이오로직스(8위, 중국), JCR 파마(9위, 일본) 등 중국과 일본 제약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클래리베이트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부의 바이오테크 지원 정책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약 혁신 분야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 내 약품 제조 역량과 임상 전문 분야의 근본적인 투자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한국이 다양한 R&D 활동을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제품의 상업화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약품 유통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래리베이트의 ‘APAC 제약 혁신 현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4만6509개 제약사 중 신약개발 가능성이 있는 929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출시한 제약사를 대형 제약사로, 10개 미만의 시판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를 ‘중소형 제약사’로 구분해 혁신 역량을 평가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태평양(APAC) 대형 제약사 TOP 20

1	다이이찌산료	일본
2	다케다 제약	일본
3	에이사이	일본
4	아스텔라스 제약	일본
5	오츠카 홀딩스	일본
6	시오노기	일본
6	CSL	호주
8	오노약품공업	일본
9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일본
9	기린 홀딩스	일본
11	한미약품	한국
12	대용제약	한국
13	스미토모 케미컬	일본
14	후지필름 홀딩스	일본
15	교린 홀딩스	일본
16	테이진	일본
17	재팬 타바코	일본
18	루핀	인도
18	마루호	일본
18	상하이포소제약	중국

“한·중·일 관광 통해 민간교류 계속하자”

관광장관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중국 뤄수강 문화체육부장, 일본 이시이 케이치 국토교통성 대신과 함께 세 나라간 관광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매년 세 나라를 돌아가며 순차적으로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올해는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 속에서 세 나라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앞으로 관광교류 및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모두를 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삼성, 8K협회와 8K TV 주요기준 발표

삼성전자는 8K협회와 8K TV의 주요 성능과 사양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8K협회는 8K 관련 표준 정립과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TV·패널 제조사, SoC칩 업체, 콘텐츠 분야 1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8K협회는 해상도 7680X4320, 프레임 레이트 24p·30p·60p를 8K로 규정했다. 또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600니트 이상이 돼야 하고,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는 HDMI 2.1, 영상 압축 방식인 코덱은 HEVC로 정했다. 8K협회는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8K TV에 인증 로고를 붙일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이번에는 롤드컵 우승이다”...명문팀 자존심 회복 나서는 T1

(롤드컵 3회 우승)

“롤드컵 우승을 다시 찾아오겠다.”(김정균 감독)

통산 여덟 번째 국내 리그 왕좌에 오른 SK텔레콤 T1(이하 T1·사진)이 다음 목표로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정조준했다.

T1은 8월 3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2019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시즌 결승’에서 그리핀을 3대 1로 누르고 우승했다. 스프링 시즌에 이은 2연속 우승으로 통산 8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와일드카드전을 시작으로 1,2차 플레이오프 거치는 동안 이른바 ‘도장깨기’로 LCK 우승을 한 첫 팀이 됐다.

T1의 상승세는 결승에서도 위력을 발휘



했다. 흡 잡을 데 없는 경기력으로 1세트와 2세트를 차례로 이겼다. 3세트에서 총공세를 펼친 그리핀에 일격을 당했지만 4세트에서 다시 화려한 공격력을 무기로 마침표를 찍었다.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1억원을 받은 T1은 곧바로 다음 목표를 정했다. 세계 최강 타이틀까지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T1은 서머 우승으로 10월과 11월 유럽에서 열리는 롤드컵 1번 시드를 받았다.

T1은 지금까지 롤드컵에서 3회나 우승한 명문 팀이다. 하지만 최근 성적은 좋지 않았다. 2016년 이후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2017년 준우승, 지난해에는 아예 롤드컵 무대를 밟지도 못했다. 5월 열린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에서도 4강에서 탈락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T1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롤드컵에서 반드시 우승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정균 T1 감독은 “너무 오래 우승을 못 했다”며 “롤드컵 우승이 욕심이 나서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이커 이상혁도 “다른 때보다 이번 롤드컵이

T1, 그리핀 누르고 통산 8회 LCK 우승 10~11월 유럽서 열리는 롤드컵 사양

광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우승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롤드컵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준우승을 한 그리핀의 활약도 주목된다. T1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리핀도 2번 시드를 배정받아 처음 롤드컵 무대에 선다. LCK에서 3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며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그리핀이 국제 무대에서 ‘준우승 징크스’를 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롤드컵에 참가할 마지막 한 팀을 결정하는 한국대표팀 선발전은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중로 LoL파크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프릭스, 김준 드래곤X, 샌드박스 게이밍, 담원 게이밍이 나선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교육·퍼즐

에듀월

2019년 상반기 최신 경향을 반영한 ‘에듀월 SKCT’

강주현의 퍼즐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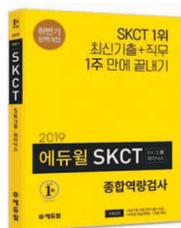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의 특징은 ‘수시 확대’

9월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열린다. SK그룹과 포스코를 시작으로 롯데·삼성 등 채용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대기업 채용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상시 채용’의 증가가 화제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주요 국내 대기업들이 공채 대신 상시 채용 및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기존의 공개채용 방식과는 달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연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남다른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막상 채용 전형이 시작되면 서류 합격 후 필기시험까지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별 인적성 검사와 같은 필기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2019년 상반기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다. 에듀월은 대기업, 공기업 채용 대비 다양한 수험서를 출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19 하반기 에듀월 SKCT SK그룹·하이닉스 종합 역량검사’ 교재를 출간해 온라인 서점 예스24

SK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당 교재는 SKCT 각 영역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 실제와 같은 문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9년 상반기 최신 기출 미리보기를 구성해 꼼꼼한 기출 유형 분석과 다양한 예제를 수록했다. 이외에도 에듀월은 LG·CJ·삼성 그룹 등 주요 대기업 채용 교재를 출간 중이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스도쿠문제

6	9		2			1	5	
4			1	9			7	
	2		8					
	6				2			
2		3	8		4	6		9
		4					7	
				4			6	
3			5	6				1
8	5			1			3	4

스도쿠정답

4	8	6	2	1	2	9	5	7
1	8	7	9	6	5	2	7	3
2	9	5	8	7	3	6	7	1
8	2	1	2	9	5	7	8	6
6	9	5	7	4	8	3	1	2
8	7	2	1	8	6	4	9	5
9	6	8	5	9	7	4	2	1
7	2	8	6	9	1	5	3	7
5	1	4	8	2	7	1	8	6
9	8	2	6	4	1	5	9	7
3	6	1	9	4	5	2	7	8
5	7	4	1	8	9	6	3	2
8	5	9	7	4	6	8	3	1
2	9	6	8	9	7	4	1	5